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공방... 1시간만에 파행

야 "조태용 후보 병역·재산 자료 없이 진행 불가"... 여 "일단 시작하자"

1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의 신상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1시간여 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 없이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다"며 청문회를 일단 진행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러 번 청문회를 했지만, 이번 경우는 처음"이라며 "후보자 재산이 50% 줄어든 사유,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사유에 대

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일날 망신 한 번 당하고 그다음 날 임명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무슨 질문을 하나. 허공에 대고 질문을 하나"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조 후보자처럼 자료를 아예 안 내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조 후보자 아들 2명이 모두 공익요원으로 근무했고 조 후보자도 6개월 방위를 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사유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군 복무 기록은 꼭 필요한 자료라면서 제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이게 본인한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동기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국정원장만 병역 자료를 안 낸 것처럼 폄하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회의 참석 여부는 현재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대상인 부분"이라며 "객관적 자료도 아니고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는 건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배우자 증여세 납부 사유는 질의응답을 통해 답을 듣고 나중에 공보를 확인하면 가능한 부분이다. 왜 공익 판정을 받았는지도 답변을 듣고 잘못된 진술 등의 부분은 재질의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자료가 많으면 청문회 진행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여파가 있다"며 "궁금한 점을 여야 의원들이 질문해서 답변을 들어 보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겠다 싶은 것은 추가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자료 제출 지적이 많이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보자로서 송

구하다"며 "개인적으로 민감한 자료도 있고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른 청문회에 비해 아주 차이가 나게, 적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은 안 된다"며 "제가 안보실장으로 재직하다가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오만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해명과 항변에도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개의한 지 1시간여 만에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며 청문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 석달 앞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90일 전인 1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에서 AI 모니터링 전담요원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의정보고회·출발기념회 등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점검,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남국 "전과 2범 이낙연, 위선의 가면 벗어"

SNS서 직격

이낙연 전 대표의 '44% 전과자'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진 '전과 2범' 이낙연"이라는 글을 올려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정말 추하다 못해 찌질한 정치인이다. 이렇게까지 '찌질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며 "실망하지 않는다. 그동안 언론에서 잘 포장해줘서 일반 국민은 겉돌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부터 오만함과 특권의식에

절어 꼬이고 뒤틀어진 성품의 사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가 포장해줬던 위선의 가면을 이번 에 벗어 던진 것 뿐이다"며 "이 전 대표의 정치란 단 한 번도 진보적이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호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호남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팔아 민주당에서 꽃길만 걸었다"며 "권력의 단물만 쪽 빨아먹으며 기생해 오던 그가 이제는 서슬 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가 전과가 생긴 동지들을 향해 '44% 전과자'라는 딱지를 붙이며 비난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해나 기자 khn@

총선 브리핑

안도걸 "ACC, 시민·전문가 운영 참여해야"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안도걸 예비후보는 11일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법안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 동구 예술거리 갤러리관선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하고 "ACC가 문제부 산하 기관으로 광주·전남의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가가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시민과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로 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 방식을 전환하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 예비후보는 "국가에서 안정적 재정을 지원받는 특별법인인 자율적으로 ACC를 운영하되 정부와 시민, 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공모를 통해 '문화계 히딩크 감독'이 될 수 있는 대표를 선임한 뒤 관련 전문가들로 운영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전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인 설립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정책추진단(TF) 구성으로 ACC가 문화 산업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며 "ACC가 콘텐츠를 세계화하고 특성화된 킬러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野 탈당 3인방, 오늘 창당계획 발표

이낙연·이준석 신당과 연대 의지... 조웅천 "7석 이상 목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주류 현역 의원 3인방 이원욱·김종민·조웅천 의원이 12일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이들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각각 주도하는 신당과 확고한 연대를 통해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연대의 형태가 합당이 될지, 선거연대가 될지는 아직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빅텐트 구축을 통해 '제3 정치세력'으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일 정도에 창당 계획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궁극적으로 총선에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웅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신당의 1차 목표는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7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1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도 목표"라고 말했다.

이들은 창당 후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개혁 신당' 등과 연대를 통해 확고한 '제3 정치세력'으로 입지를 굳히는 시도를 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조 의원은 "기호 3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은 합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말씀을 들어보고 맞춰가면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 등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빅텐트를 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제정당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돌연 '당 잔류'를 선택한 데 대해서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탈당이 옳고 당에 남는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남는 것도 또 하나의 정의이고 선(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 속했던 이들은 전날 탈당과 함께 신당 추진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